

해외가 인정한 IP... 카카오엔터, 1.2조 역대최대 투자 유치

유수의 국부펀드 등 해외기관 투자 차별화된 IP밸류체인 경쟁력 증명 '비욘드 코리아' 비전 달성 가시화 K컬처 주도 글로벌 엔터 자리매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투자를 바탕으로 '비욘드 코리아' 비전 본격화에 앞장선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해외 유수의 국부펀드로부터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제3차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형태다. 이는 역대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 사례 중 최대이며, 카카오 공동체 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다.

특히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자본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이뤄진 상당한 규모의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투자 유치를 이끈 카카오 배재현 투자거버넌스총괄 수석부사장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임에도, 유수의 국부펀드 등 해외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엔터 전 분야를 아우르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화된 IP밸류체인의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세계 시장에 증명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 투자 유치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스토리-미디어-뮤직 부문을 아우르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니크한

IP 밸류체인과 성장 저력을 국내외로부터 인정받았다는 해석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1만여 개 웹툰, 웹소설, 오리지널 스토리IP와 7만여곡 음원 라이브러리, 아이돌, 보컬리스트, 배우 등의 아티스트들은 물론, 음악과 영상 콘텐츠의 기획/제작 역량, 플랫폼 네트워크에 기반한 글로벌 유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전 분야에 걸친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스토리, 미디어, 뮤직 등 각 사업 영역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며 글로벌 엔터산업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주력해왔다. 하나의 IP가 다양한 콘텐츠로 진화, 확장할 수 있는 IP 밸류체인을 구축해 가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를 본격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투자 유치로 확보한 재원을 글로벌 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카카오 공동체의

미래 비전인 '비욘드 코리아'를 가시화하고, K컬처 열풍을 주도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리딩 컴퍼니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다. 거대 글로벌 엔터기업들과 어깨를 견주며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내실 있는 글로벌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투자 유치로 각 부문의 글로벌 청사진은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스토리 부문은 북미와 아세안, 중화권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으며, 향후에는 각 지역에서 빠른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본사 주도의 리더십을 통한 공격적인 IP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선봉에 서는 건 유수의 K웹툰, 웹소설이다. 한국 최대 규모인 1만여개 오리지널 IP를 보유한 스토리 부문은 더욱 다양한IP를 기획, 발굴하고, 이를 북미,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진출 지역에 선보인다는 목표다.

특히 지난해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시장인 북미에 타파스, 래디쉬, 우시아월드 3개 플랫폼을 아우르는 타파스엔터테인먼트를 세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10만여명의 현지 창작자들과 협업은 물론 노블코믹스(Novel-Comics), 삼다무 등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 노하우를 적극 결합해 북미 영상 사업과 시너지를 도모할 예정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투자 유치로 초경쟁 글로벌 엔터산업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성장을 가속화할 재원을 확보했다"며, "이를 토대로 글로벌 엔터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진정한 글로벌 엔터기업으로서 '비욘드 코리아' 비전 달성을 주도하며 카카오 공동체 전반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가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KT, 한국형 UAM 상용화 앞당긴다

유영상 등 주요경영진 CES 총출동 美 조비 에비에이션과 협력 구체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미국 현지에서 조벤 비버트 조비 에비에이션 CEO 등과 만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사업 협력 구체화에 나섰다.

SK텔레콤은 12일 조비 에비에이션과 'CES 2023' 및 UAM 생산시설을 방문해 K-UAM 실증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초기 상용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SKT는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을 결성해 국토교통부 UAM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사업에 참여했다.

유 사장을 포함한 SKT 주요 경영진은 CES 2023에 총출동해 조벤 비버트 CEO, 에릭 앨리슨 부사장 등 조비 에비에이션 핵심 경영진과 만났다. 양사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UAM 실증사업(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의 성공적인 수행과 이후 한국 UAM 상용화를 위한 사업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미국 새너제이 조비 에비에이션 생산시설에 있는 UAM 항공기 앞에서 조벤 비버트 CEO, 유영상 CEO가 포즈를 취하는 장면. /SKT

SKT는 조비 에비에이션 UAM 서비스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체를 국내에 도입할 때 필요한 형식증명 절차, 초기 UAM 수요를 발생시킬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 항공기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인프라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UAM 항공기는 세계적으로 공개된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중에서 가장 먼 거리를(249km/1h 17m) 가장 빠르게(330km/h) 비행할 수 있는 독보적 기술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체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

될 경우 K-UAM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T와 조비 에비에이션은 올해 8월 본격 시작되는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을 통해 UAM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운용기준이 마련되면 지속가능성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본격 협업 2년차를 맞은 SK텔레콤과 조비 에비에이션이 한미 UAM 협업의 가교 역할과 K-UAM의 성공적 상용화를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LS전선, 알루미늄 신소재 사업 본격화

美 협회서 고유 합금번호 부여 받아 車 무게 축소에 연비개선 효과 기대

LS전선이 미래 핵심 소재 알루미늄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LS전선은 미국 알루미늄협회에서 고강도 알루미늄 신소재로 고유 합금번호(AA8031)를 부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A8031은 강도를 40% 이상 강화하고 유연성을 개선하며 알루미늄 단점을 해결한 제품이다. 강도를 강화하면서 전도율도 최대한 유지했다.

LS전선은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가벼운 만큼 자동차 등 산업에서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선 무게를 40% 이상 줄일 수 있어 자동차 무게를 약 10kg 축소, 연비 개선 효과도 기대

된다.

LS전선은 LS알스코와 전기차와 풍력발전기 등에 공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겸 LS전선 기술연구소 연구원은 "AA는 특허와 달리 상용화 여부 및 기간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기 때문에 취득이 쉽지 않다"며, "AA8031은 2019년부터 현대차, 기아의 자동차 전선에 상용화되는 등 품질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삼성 네오QLED, 생체리듬 최적화질 인증

獨 VDE 생체리듬 디스플레이 인증 아이 컴포트 모드로 색온도 등 조정

삼성전자 네오 QLED가 생체 리듬까지 신경쓰는 디스플레이로 인정 받았다.

삼성전자는 2023년형 네오 QLED로 독일 VDE에 '생체리듬 디스플레이'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더 프레임'과 '더 세리프', '더 세로' 등 라이프스타일 TV 라인업도 함께다.

VDE는 '아이 컴포트 모드'가 낮과 밤에 따라 자동으로 휘도와 색온도를 조정해 사람 생체 리듬에 최적화해 화질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라이팅 리서치 센터 연구 결과로 만든 업계 표준 'CS 지수'로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 TV는 낮에는 휘도와 색온도를 높여 실내에서도 실외와 같은 효과를 내고, 밤에는 반대로 낮춰 수면을 돕도록 작동한다. 앞서 2021년 업계 최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오석우 부사장(왼쪽)과 스벤 오케(Sven Ohrke) VDE 마케팅·영업담당 사장이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생체리듬 디스플레이' 인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초 '아이 케어' 인증을 획득하고 2022년형 더 프레임은 '매트 디스플레이'로 '눈부심 방지'를 획득하는 등 글로벌 인증기관에서 시청 안전성과 색상 정확도를 인정 받아왔다. 지난해 QLED TV 전 모델이 팬톤 컬러 인증을 세계 최초로 받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juk@

포스코케미칼 친환경 활성탄소 신사업 진출

동서화학공업과 합작법인 설립

포스코케미칼이 석탄화학 전문회사인 동서화학공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수질·대기 정화용 친환경 소재인 활성탄소 신사업에 진출한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11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청송대에서 김준형 포스코케미칼 사장, 조용문 기초소재연구소장과 전장영 동서화학공업 회장, 홍영준 건설소재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활성탄소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올해 하반기 활성탄소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24년 말까지 연산 7000톤 규모의 활성탄소 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다. 합작사는 제철공정의 코크스

제조 중 생성된 유분을 재활용해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코크스는 석탄을 가공해 만들며 제철공정의 열원으로 활용된다.

포스코케미칼은 원료 공급과 활성탄소 제조를 담당하고 동서화학공업이 원료 가공을 맡는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활성탄소는 목재, 석탄 등의 탄소질 원료를 고열로 가공해 제조하는 친환경 소재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번 합작을 통해 국내 활성탄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활성탄소 시장은 지난해 기준 전 세계 6조원, 국내 2500억원 규모로 국내 사용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